



■ 서울시 부정도계육 유통 단속 —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기로 —

서울시는 닭고기 유통정착을 위해 밀도계품 유통 방지, 식육운반차량에 의한 닭고기 운송, 불가식 부위 제거유통, 포장유통 의무화, 닭고기 위생강화, 타도 특급도계장 서울시 냉장 반출(5월16일 이후) 이행여부 등을 중점 단속기로 했다.

닭고기를 위생적으로 처리, 공급함으로써 시민보건 및 환경위생 개선에 기여하고, '86 아세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대비해 유통근대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도계장외의 밀도계행위, 부정도계품 판매·취급, 불가식 부위 및 미포장 유통, 무허가 닭고기 판매업소, 무허가 식육운반차량 닭고기 운송 등을 보사국과 경찰국의 협조로 연중 정기단속과 성수기(6~9월)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정기단속반 18개반(본청 1, 구청17)과 특별 단속반(본청, 구청, 경찰로 구성)을 편성해 밀도계 행위자, 판매자, 취급자 고발 및 물품을 압수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현행 축산물위생처리법에는 범법행위자에 대하여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닭고기 1일평균 소요량을 23만 5천 수로 성수기는 32만 6천수, 연간소요량 8천 5백 86

만수로 파악하고 공급현황은 서울시 3개소의 도계장에서 1일 4만수, 서울시 외의 도계장(19개소)에서 24만 2천수를(총 22개소에서 28만 2천수 공급) 공급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닭고기 판매업소는 서울 시내 전문닭고기 판매업소 1천 6백개소, 식육판매업소 800개소 포함 2천 4백개소이며 닭고기취급 요식업소는 음식점 856개소, 치킨센터 2,609개소 등 총 3,465개소에 이르고 있다.

■ 대한수의사회장에 이남신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일신상 형편에 의하여 사임한 전동용회장의 후임에 이남신씨를 새 회장에 선출하였다. 이남신박사는 일본 마포수의 졸업하고 농림부 축산국장과 한국마사회 감사를 역임한 바 있다.

■ 타피오카 관세율 인하

재무부는 4월 1일부터 타피오카의 관세율을 20%에서 일반 사료곡물과 같은 수준인 7%로 인하조치하였다.

이로써 최근 타피오카 산지가격이 폭락한데다 관세율까지 인하하여 앞으로 타피오카가 배합사료 원료로 많은 양이 사용될수 있도록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타피오카는 주정원료로 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태국, 중국 등이 주요 생산국이다.
(본문 p.62 참조)

■ 동물약품협회 사무실 이전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이오직)는 3월 29일자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424-1
(강남종합도매시장 부속상가 17-505)
- 전 화 : 584 - 1448 ~ 9

■ 단미사료협회 사무실 이전

한국단미사료협회(회장 양효진) 사무실과 전화번호가 3월29일자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424-1
(강남 종합도매시장 부속상가 17동 5층 4호)
- 전 화 : 585 - 2223 ~ 4

■ 쇠고기가격 연동제 실시

- 4월11일부터 시행, 황인성
농수산부장관 기자회견 -

정부는 산지 소값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쇠고기값은 별로 내리지 않는 불합리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자율신고 가격제로 돼있는 쇠고기값을 연동가격제로 전환, 4월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황인성 농수산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kg당 枝肉가격을 4천3백원으로 볼때 연동제를 실시하면 서울의 소비자가격은 5백g당 3천6백원으로 전망, 현 신고가격 3천8백~3천9백원에서 2, 3백원 정도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농수산부는 현행 푸줏간의 자율신고 가격제 대신 시도지사로 하여금 경락가격에 맞춰 소매가격을 지정토록하여 이 가격을 어기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벌여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黃장관은 또 미군부대와 관광호텔 등지에서 외국

관광객용으로 수입되고 있는 쇠고기가 시중으로 부정유출되고 있다고 지적, 합동단속을 실시해 적발될 경우 무역거래법을 적용,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농수축산인 체육대회

- 4월27일 농촌진흥청에서 -

제4회 전국 농수축산인 체육대회가 농수축산신보사(대표 한남석) 주최로 4월27일 농촌진흥청 구장에서 개최된다.

농수산부 및 산하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체육행사는 축구, 배구(남·여), 릴레이, 로디오게임 등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농수산부, 농촌경제연구원, 농수축협이 후원한다.

문의전화 : 323 - 0091 ~ 4

■ 돈콜레라 발생주의보 발령

농촌진흥청은 3월15일자로 돈콜레라 발생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이는 지난 겨울철 방역소홀로 인하여 서울,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각 지역에서 돈콜레라가 발생, 양돈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고, 날씨가 풀리면서 더욱 크게 퍼질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 Feed Microscopy 고급과정

Feed Microscopy 고급과정이 작년 4월 기초과정에 이어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열린다.

USFGC가 주최하고 한국사료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과정에는 미국 Feed Microscopy 기술자협회 회장직을 역임한 Wilma Hill Dreesman 여사, Lewis Barefield씨가 초청되며, 다루어질 주요내용은 주요곡류의 조직구조를 비롯 한국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단미사료 및 첨가제(항생물질포함)의 현미경 검사방법, 독성이 있는 잡초

씨 등 사료중의 이물질식별방법, 유기물과 무기물의 분별방법 등 현미경을 이용한 정성분석은 물론 정량분석의 이론과 실습이 병행된다.

■ '85년도 임원 및 지부장 연속회의

대한양돈협회(회장 전동용)는 85년도 제 1차 임원 및 지부장 연속회의를 지난 4월 3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전국 지부장 및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연속회의에서는 신규지부 승인안과, 신규회원 가입승인안, 제 3회 전국양돈인대회 계획서안 등을 통과시키고, 협의 안에서는 양돈경기 전망분석 및 대책협의와 84년도 회비 미납지부 및 회원처리 대책협의를 가졌다.

■ 미국 오리곤주 농산물 전시회



미국농업무역에서는 미국 오리곤주 농무성과 공동으로 농산물전시회를 지난 3월29일부터 30일까지 미국공보원 전시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1981년, 1983년에 이어 세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오리곤주의 17개 회사가 참가 하여 종자, 생과실 가공품, 야채, 통조림식품 그리고 묘목이 전시되었다.

■ 원유가격 2.9% 인상

농수산부는 5월 1일부터 원유가격을 2.9% 올리기로 하였다.

이는 낙농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가격과 인건비 상승을 감안, 현행 kg당 313원에서 322원으로 9원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그런데 원유가는 지난 82년 4월 2%가 인상된 후 3년간 동결돼 왔었다.

한편 우유가격은 현시세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낙농육우협회(회장 유윤수)와 우유관계 낙농축협장들의 84년 11월 당국의 공동 건의에 따라 받아들여진 것이다.

■ 설동섭박사

가축위생연구소 설동섭소장은 4월18일(목) 오후 1시 목화예식장 1층 목화실에서 장남 계환군의 결혼식을 거행한다. 목화예식장은 테헤란로의 지하철강남역 근처에 있다.

■ 연암축산원에전문대학(학장 나기현)

지난 2월28일 논문집 제 6집을 발간하였다. 이번 논문집에는 1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 유윤수회장 영국초청 출국

유윤수(낙농육우협회)회장은 지난 3월13일부터 28일까지 축협중앙회 김영록이사, 이기복진흥부장, 강신홍과장, 서울우유 박상원 이사, 양돈협회 한백용전무 중축개량협회 이원부장, 국립중축원 이광원 연구관, 한국마사회 이사등은 영국정부 초청으로 지난 3월12일 출국하였다.

영국의 축산물 유통구조와 생산자 단체의 조직운영 등을 둘러본 다음 이곳의 축산물 유통구조 및 생산자 단체의 조직운영 상황 등을 살피고 28일 귀국하였다.